

# 비수도권도 2단계...모임 4~8명 제한

### 전남·전북·세종·경북 제외 오늘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단계로 격상된다. 지역에 따라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과는 4명~8명까지만 모임 수 있고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펍게입장, 클럽, 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 가운데 광주·대전·충북·충남·대

구·부산·울산·경남·강원·제주 등 10개 지역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은 세종·전북·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1단계를 유지한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1주(7.8~14)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1255.9명꼴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955.7명, 비수도권이 300.1명이다.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거리두기 2단계 기준(지자체별로 상이) 이상에 해당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로 정책실장)은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1주 전 133명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며 "비수도권도 '4차 유행'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난 제주의 경우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18.3명으로 3단계 기준(13명 이상)에 해당하는 데 이번 주 내에 3단계 격상 및 특별방역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2단계가 적용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8명까지만 모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예를 들어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만 모임 수 있도록 했고 울산·제주는 인원 제한 기준을 '6명까지'로 정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1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3개 지역 역시 8명까지로 모임 규모를 제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연합뉴스



서구 빛고을체육관센터 백신 접종 행렬 14일 오후 광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접종을 기다리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2일 예약을 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에 대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밝혔다. 19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50~54세 대상자는 사전 예약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약 가능 시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전남 5년간 폭염 사망자 13명...“체계적 폭염대책 필요”

연일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광주·전남 지역에서 13명이 폭염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돼 체계적인 폭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경기 포천·가평) 의원이 질병관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남에서 모두 9명이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

같은 기간 24명의 사망자가 나온 경북 지역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수치다. 연도별로는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4명, 2019년 2명 등이다. 광주의 경우 같은 기간 4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6년 1명, 2018년 2명, 2019년 1명 등이다. 광주·전남에선 지난해와 올해 6월까지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은 "폭염도 법적으로 자연 재난에 포함 된 만큼 유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하는 등 대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는 고령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25일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첫 폭염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 “여가부 폐지 주장 무책임...기능 강화할 때”

### 광주·전남 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시도 여성 정책 기관 성명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는 14일 보수 야권 인사들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날로 심화하는 젠더갈등, 청년 문제를 부추기만 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일부 정치인과 대선주자들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들의 주장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타 부처로 소관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대선 공약부터, 여성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에 불과하므로 없애야 한다는 무용론까지 다양하다”고 했다. 협의체는 “국가 예산 0.2%에 불과한 초미니 부처로서 폭증하는 성차별, 성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라며 “여성가족부 폐지 운운이 아니라 현실점은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펼쳐 갈 수 있는 권한과 조직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

고 밝혔다.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초중생 이하 자녀를 둔 여성 5명 중 1명이 퇴사를 경험했고 돌봄은 온전히 여성의 몫으로 돌아왔다”며 “가정, 직장, 사회에서 여성·아동·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다양하고도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논할 게 아니라 더욱 확장되고 강화된 성평등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며 “대선주자들과 각 정당은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보수야권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여성 정책네트워크는 광주여성가족재단, 전남여성가족재단 등 17개 시도 여성정책연구기관의 협의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개인택시 면허 진입 장벽 낮춘다

### 양수 자격 무사고 경력 완화

광주시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요건을 완화했다. 광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인택시 면허 사무 취급 규정을 개정해 면허를 양수하는데 필요한 무사고 운전 경력을 줄였다고 14일 밝혔다. 법인 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는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와 회사 배송 차량 등 비영업용 차량 운수종사자는 6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다. 운수 종사자가 아니었다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이면 개인택시 양수 자격

을 올해부터 취득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경찰청 운전경력 증명서상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인 일반인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40시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조건을 갖추게 된다. 지난해 현재 광주 개인택시는 4789대다. 상반기 중 광주 각 자치구에서 개인택시 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인가한 사례는 122건으로 이 가운데 62건은 운수 종사자가 아닌 무사고 5년 경력자가 양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전남도, 호우피해 재발 방지 TF팀 가동

###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팀 구성

전남도가 지난 6일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개선 TF팀은 전남도 건설기술위원을 맡은 지방 분야 전문가와 도 관계 공무원, 호우피해가 심한 시·군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사면 붕괴 원인 사례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활동에 나선다. 특히 사면 붕괴 피해가 가장 컸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를 대상으로 붕

괴사고가 발생한 3~4개 정도의 사업지를 선정, 관련 허가 현황과 붕괴 원인 등을 철저히 분석할 방침이다. 박철원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현행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을 살피고, 이에 맞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군·수에게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유도하겠다”며 “지방 분야 전문가를 보강해, 앞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사전에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t@kwangju.co.kr

**임야, 단독주택**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투자**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나주 요양병원 「급매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상 1층 ~ 지상 4층  
- 침대 수 : 200침대
-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 분실공고

-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확장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원 '무등산 자이 앤 어울림' 110동 1901호
- 계약자 : 김혜은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1년 7월 15일

### 산행안내

7월25일(일)  
▲광주저산악회 7월25일(일) 강원도 등해, 삼척시&40년만에 개방, 한국의장가계, 두타산(정옥산)협곡마천루, 배틀릿지무릉계곡 산행, 영주체육관 05:00, 동아병원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주차장 05:30 \* 다음카페 광주저산악회 ☎ 010 7794 6920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세남**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光州日報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구	• 동광 266-1920 • 문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안 222-8171 • 양산 571-7658 • 오치 266-7601 • 용봉 433-1503 • 우산 433-1503
동구	• 남광 673-6836 • 동명 222-9054 • 동부 225-6001 • 중앙 222-9054 • 충장 222-8171
남구	• 남부 673-6836 • 백운 651-1833 • 봉선 673-6836 • 송하 675-6605 • 진월 671-7276
서구	• 광천 382-5788 • 상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천 376-7153 • 치평 376-6511 • 풍암 603-0311 • 화정 369-1625
광산구	• 윤남 952-1687 • 월곡 959-1920 • 첨단 973-2900 • 하남 955-0451 • 광산 944-0444